눈으로 받아들이는 안입은 허망해

〈眼入〉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⑬ 육입(六入)이 여래장이다

〈원문〉 "아난아, 어찌하여 육입(六入)이 본래 여래장인 묘한 진여의 성이라 하느냐 하면, 눈동자가 쏘아볼 때 피로가 생긴 경우에도 눈이 쏘아보는 것이나 피로가 생긴 것이 모두가 보리가 쏘아보며 피로를 발한 모습이니라. 밝고 어두운 두 가지 망진(妄塵)을 인하여 견을 발하여 가운데 있으면서 이 진상(塵象)을 흡취(吸取)하는 것을 보는 성품(見性)이라 이름하거니와, 이 견이 저 밝고 어두운 두 진(塵)을 여의고는 필경에 자체가 없느니라. 이러하니 아난아, 마땅히 알아라. 이 보는 것(見)이 밝고 어두운 명암에서 오는 것도 아니며 근(根)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며 허공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니라. 왜냐하면 만약 밝음에서 왔다면 어두우면 따라 없어질 것이니 어둠을 보지 못해야 하며, 만약 어둠에서 왔다면 밝으면 따라서 없어질 것이니 밝음을 볼 수 없어야 하리라. 만약 근(根)에서 생겼다면 반드시 밝음과 어둠과는 상관없으리니 이와 같이 견정(見精)도 본래 자성이 없을 것이니라. 만약 허공에서 나온다면 앞으로 진상(塵象)을 보았으니 물러 돌아올 적엔 마땅히 근(根)을 보아야 할 것이며, 또 허공이 스스로 보는 것이니 너의 눈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이러므로 마땅히 알아라. 안입(眼入)이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성이니라."

〈강해〉 오음에 이어 육입도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여래장인 묘한 진여 성이라고 밝히는 대목이다. 육입은 육근(六根)을 말한다. 눈이 색진(色塵)을 받아들이고 귀가 성진(聲塵)을 받아들이므로 근(根)을 때로는 입(入)이라 한다. 공화(空華)를 보는 것이 눈이 피로하기 때문인데 공화를 보는 그 자체가 보리가 피로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의 뜻은 사람이 눈을 가지고 산하대지의 만물을 보는데, 이것이 눈이 피로해져 공화를 보는 것처럼 본다는 말이다. 달리 말하면 무분별(無分別)의 경계를 분별로 본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눈이 피로해졌기 때문에 공화가 보이듯이 분별식심(分別識心)이 일어난 것이 보리가 피로해져 그렇다는 뜻이다. 보는 것이 눈에서 생긴다고 하지만 명암이 없으면 보는 것이 작용을 못하므로 보는 것이 눈에 있다고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는 견(見) 자체에 체성이 없기 때문이다. "견이 명암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눈(根)에서 나는 것도 아니며, 허공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다."고 미묘한 말씀을 해 놓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만약에 견이 밝고 어두운 명암(明暗)에서 나온다면 명암은 서로 반대이므로 어두우면 밝은 데서 나온 견이 없어져버릴 것이고, 어두우면 어둠에서 나온 견이 밝아지면 또 없어져 버릴 것이란 말이다. 밝고 어두운 것을 다 보니까 견이 명암에서 나온다는 말이 성립될 수 없다. 만약 견이 근에서 나온다면 명암을 보는 게 견인데 명암하고 견이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허공에서 나온다는 것도 가정해 보지만 만약 허공이 본다면 눈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고 했다. 결론은 눈으로 받아들이는 안입(眼入)이 허망한 것이지만, 안입이 있게 된 근본 당체(當體)는 여래장 묘진여성이란 말이다. 줄여 말하면 여래장성(如來藏性)으로 중생계의 모든 것이 모두 여래장성이라는 말이다. 〈유가사지론약찬〉에 중생계가 여래장성임을 강조하면서 여래장에는 늘어나거나 줄어듦이 없다고 하였다. 여기에도 〈능엄경〉의 말을 인용하여 말하는 대목이 있다.

"아난아, 여래의 경계는 한량이 없고 끝이 없으나 중생이 번뇌의 티끌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비롯함이 없이 생사의 바다에 흘러 떠돈다. 이렇기 때문에 중생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보면 진여가 허망의 본성이며, 허망한 진여에 의지하여 성립한다. 허망이 비록 일어나거나 소멸하더라도 진여에는 증가하거나 감소됨이 없느니라." 또 대승의장(大乘義章)에 여래장성을 설명한 말에 "여래장성은 본래부터 일어나거나 소멸하지 않고 자성은 항상 적정(寂靜)하며, 법을 무너뜨린 후에 공(空)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진여라 한다."고 하였다. 또 여래장성은 갠지스강 모래알 수만큼 많은 공덕을 두루 갖추었으니 본래 있는 것이요. 지금에 와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였다.

〈반야불교연구원장〉

空觀하려면 중심분리 통해 이면 확보를



구선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⑬ 공관법(空觀法)

공관(空觀)을 할 줄 모르면 이때의 장애를 극복하지 못한다. 공관을 하기 위해서는 중심 분리를 통해 이면을 확보해야 한다. 6장, 6부의 균형이 깨졌을 때 중심에서 드러나는 경상이 있다. 이때 드러나는 경상이 13가지이다. 그 중 12가지는 장부가 안 좋을 때 드러나는 경상이고 나머지 한 가지는 장부의 상태가 안정되었을 때 드러나는 경상이다.

중심 자리에서 물결이 일렁이는 듯한 설렘이 일어나면 신장이 안 좋은 것이다. 메슥거림이 느껴지면 비장이 안 좋은 것이고, 누르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지면서 통증이 있으면 심장이 안 좋은 것이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면 폐가 안 좋은 것이고, 불안함이 느껴지면 담이 안 좋은 것이다. 담이 수축됐을 때 불안함이 생긴다. 울렁거림이 느껴지면 간이 안 좋은 것이다. 울렁거림과 메슥거림이 같이 느껴지면 간, 비장이 함께 안 좋은 것이다. 답답함이 느껴지면 위가 안 좋은 것이고, 더부룩함이 느껴지면 소장이 안 좋은 것이다. 짜글거림과 더불어서 조급함이 일어나면 대장이 안 좋은 것이다. 긴장감이 생기고, 안정이 안 되면 방광이 안 좋은 것이다. 격정에 차 있으면 심포가 안 좋은 것이다. 신경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우면 삼초가 안 좋은 것이다. 장부가 안정된 상태이면 중심이 편안함을 유지한다. 중심을 보고 있을 때 위의 12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그 부위에 해당하는 장부가 안 좋은 것이다.

중심을 분리해서 이면이 갖춰지면 심왕(心王)이 깨어났다고 말한다. 심왕이 깨어나면 장부를 이루고 있는 6가지 주체 의식이 심왕에 조복한다. 심왕이 세워지지 않고 6개의 주체 의식이 깨어나면 서로 다투는 관계가 된다. 6장의 주체 의식이 발현될 때 심왕을 먼저 세워주면 주체 의식 간의 부딪힘이 최소화된다. 심왕이 세워지면 장부 순화가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심왕을 활용해서 장부 순화를 하는 것도 주체의식을 발현시킬 때와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중심으로 비추어서 불안함이 일어나면 담이 안 좋은 것이다. 그럴 때는 이면의 관여되지 않는 자리로 불안함을 비춰준다. 담도 함께 비춰준다. 그러다 보면 불안함이 사라지고 다시 편안함이 갖춰진다. 슬픔이 일어나면 슬픔도 관여되지 않는 자리로 비춰준다. 그러다 보면 슬픔이 사라진다. 슬픔이 제도되면서 심 · 폐도 함께 치료된다. 이렇게 중심을 통해 6식의 장부를 제도해가다 보면 문득문득 7식의 주체 의식들이 깨어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때부터 교류가 시작된다. 어떤 여자애가 나타났는데 녹색 모자를 쓰고 있다. 녹색 모자를 쓰고 있으니 간이다. '간 너는 여자였구나' 그때야 자기 간의 주체 의식이 여자인 것을 알게 된다. 나중에 그 의식이 나타나서 뭐라고 뭐라고 하면 '내 간이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 하지만 그 과정을 못 겪어본 사람은 녹색 모자 쓴 여자애가 나타나서 뭐라고 뭐라고 하면 외부 의식으로 착각하게 된다. 5장의 주체 의식이 깨어났을 때 의타심이나, 거부감, 두려움을 갖게 되면 마장(魔障)에 빠지게 된다. 나중에 신경순화나 의식순화의 과정에서는 육근원통법(六根圓通法)을 통해 시상으로 직접 들어가서 6장의 주체의식들을 만나게 된다. 시상의 부위별로 서로 다른 주체 의식들이 내재되어 있다. 뇌척수로 운동을 통해 장부 순화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폭넓은 범위에서 자기 제도가 이루어진다. 뇌척수로 운동이 익숙해지면 각 손가락의 움직임을 통해서 원하는 부위를 자극할 수 있게 된다. 3, 4, 5지를 구부려서 연수를 조여주고 소장을 자극한다. 검지를 구부리면서 미주신경을 자극하고 대장을 자극한다. 엄지를 구부리면서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심 · 폐를 자극한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흐스님의 〈능가경〉 강설

⑬ 열반

움직이는 것이 죽은 것

"무엇을 열반이라고 합니까?" 아주 간단한 질문이지만 질문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궁금하고 난해한 문제일 것이다. 몸이 사라지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두려운 죽음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자연스러운 열반이 된다. 하나의 문제가 서로 다른 행로를 갖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생멸을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생멸이 존재한다고 보는 기준에서는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떠나지 않는 근심거리이다. 하지만 생멸이 없다는 앎의 기준에서는 삶과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자 환(幻)이므로 아무런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생멸에 조금의 고민이 생겨난다면 생멸에 대한 오해가 생겨난 것이고, 이것은 바로 열반에 대한 오해이기도 하다. 전도된 의식이 초래하는 이러한 오해는 적지 않은 불필요한 행위와 생각을 일으키지만, 우리는 이것이 '불필요한 행위'이고 '생각'이라고 누구에게도 듣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불행한 일인 줄조차 모른다. 혹 누군가에게서 이런 말을 듣더라도 지나치지 않고 진실한 믿음을 내기는 더더욱 어렵다.

변하고 항상하지 않은 몸과 마음은 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몸과 마음을 나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움직이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존재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멈춤을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죽어있는 것을 움직이면서 살아있다고 착각한다. 죽어있는 것이 느낌으로 인식하고, 생각으로 분별하면서 자연스럽게 현재 상황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으니, 움직이는 것이 죽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살아있는 것은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알 수가 있겠는가? 이러한 이치는 말을 하는 사람보다는 듣는 사람이 더 황당하게 들릴 것이다. 그러나 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니 둘의 입장은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 언어로는 접점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선사들이 '언어 이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언어 이전'이라 하여 별다른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생각이 일어난 그 시점의 분별심이 무엇을 근거로 일어났는지를 똑바로 보라는 것에 있었을 뿐이다. 자세히 보면 아무 근거가 없다. 상대적인 입장 차이밖에 없으며, 입장에 따라 궤를 달리하는 봄을 합리적인 것을 들어 옳다고 할 수도 없다. 법을 가르치는 것과 열반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가르치는 것은 상대가 있으니 방편이지만, 열반은 상대가 나타날 수가 없다. 만약 상대가 있다면 그것은 열반이 아니다. 상대가 없으므로 생멸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열반을 적정처라 말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단멸견도 아니요, 그렇다고 항상견도 아닌 것이네. 차안도 아니고 피안도 아니며, 또 청정이나 원적 등을 개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그 속에 무슨 뜻이나 이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네."

뒤집어 보면 열반이 아닐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열반이냐, 그것도 아니다. '오온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오온을 어떻게 알 것이냐.'의 문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만약 전환을 빠르게 한다면, 모양과 소리의 변화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은 사라지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자를 유심히 살피게 된다. 숨을 쉬듯 살필 뿐, 잘하고 못함이 없다. 바른 것을 알고 계속하여 훈습하듯이 흘러가는 것이다. 연결되든지 끊어지든지 상관없이 살피는 것을 잊지 않고 꾸준히 하다보면, 문득 맞아떨어지는 자리를 보게 된다. 그때가 되어서야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리게 된다. 그리고 서서히 앎의 구슬이 모이게 되고, 꿸 수 있는 실이 생기게 되고, 꿸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모양과 소리를 피하여 움직이고 머무르는 것이, 특별한 뜻이 없이 자연스러운 스스로의 일임을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것이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법당서 누구 망신?

마이크와 2m 멀리서 작은 소리에도 장엄하고 신명 넘치는 염불소리로 바꾸어 드리는 최신 디지털 마이크 소개 : 법당서 스님 마이크와 본사 마이크와 스님 자신이 양손에 염불을 해 볼시 추호라도 광고 내용과 다르면 법당서 누구 망신?....비교시 장난감 성능 차이를 확인

오직! 마이크만 바꿔도 수 천번의 염불이 내 귀에 신명으로 힐링되니 보물이 따로 없다.

전국을 다니며 시설함으로 귀 사찰을 부근을 지날때 견본으로 일단 소리만 비교
소리비교비용은 커피 한잔!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190~수 천만원까지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7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현장 방문 시설가격
₩ 78만원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도 성우 음성으로 화답!
현장 방문 시설가격
₩ 80만원